

충남리포트 제193호

ChungNam Report

2015. 11. 16.

중국 관광객(요우커, 遊客)의 충남 유치 전략 마련

박 인 성

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연구위원, ispark@cni.re.kr

본 글은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관광 대상지를 대폭 늘리면서 관광객(요우커)의 한국 방문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 맞춰 충남지역으로의 유치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함

요 약

CONTENTS

< 요 약 >

1. 중국인 출국관광 현황 및 동향
2. 방한 요우커의 유형과 관광특징
3. 충남의 요우커 유치전략

- 2014년 방한 중국 관광객(이하 '요우커') 규모가 613만 명으로 최근 10년 만에 8.6배 이상 증가했으나, 이중 충남지역을 방문한 비중은 0.4%에 불과함
-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61.5%(서울 49.0%, 인천 5.5%, 경기 10.6%)와 제주(20.9%)에 집중되어 있고, 그 뒤로 경상권(5.9%), 강원권(4.4%), 전라권(2.0%)이고, 충청권이 1.5%로 가장 낮음(대전 0.9%, 충남 0.4%, 충북 0.2%)
- 요우커 충남 유치 전략은 충남도와 시·군의 국내관광객 유치 전략 및 대(對)중국 교류협력 네트워크와 연결해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
 - 충남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요우커 유치를 위한 관광 마케팅과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, 유학생 부모와 친지 대상 효도관광, 친지방문 등 한국방문 관광상품을 개발·운영
 - 충남도와 시군의 교류파트너인 중국 성, 시현 지역의 공무원 및 기업체 간부를 대상으로 정책연수관광상품을 운영
 - 공주·부여 등 백제역사문화유적 관련 역사문화 스토리 발굴 및 창작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구상
 - 단체패키지 관광 보다는 다양화, 증가추세에 있는 테마별 개별자유 여행객에 중점을 두고, 협동조합형 기업, 두레기업, 사회적기업 등 지역 주민의 주도권과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발방식과 적극적으로 결합 시켜야 함
 - 국제공항과 국제여객선 확충을 추진하면서, 서울(수도권)과 충청권 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관광상품을 마련



충남연구원
ChungNam Institute

1) 중국 출국관광시장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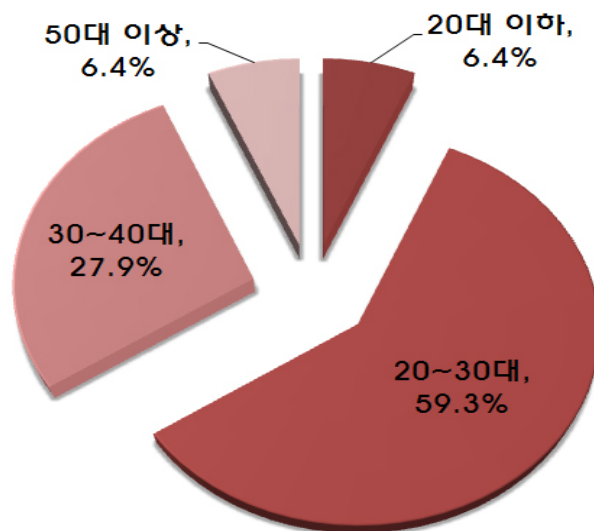
- 1980년대에 홍콩, 마카오 친인척 방문 여행으로 시작된 중국인 출국관광과 출국관광시장은 규범화,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한 증가 및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
 - 1997년 7월부터 ‘중국 공민 자비 출국관광 관리 잠정방법(中国公民自费出国旅游管理暂行办法)’이 시행되면서 출국관광시 더 이상 친지방문같은 명분이 필요없게 되었고, 호주,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과 일본도 자비 출국관광 목적지 국가로 지정되었음
- 2014년 말 기준, 중국정부가 자국민의 출국관광 대상 목적지로 개방한 곳이 151개 국가이고, 중국인 출국관광객 총인원수는 1억 900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251% 증가함
 - 이들의 목적지에서의 소비총액은 2013년 1,293억 달러로 전년도(1,020억 달러)에 비해 26.8% 증가
 - 요우커¹⁾들이 여행 목적지를 국외로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 국내와 해외의 소비가격 차이, 그리고 인민폐 가치의 지속적 상승 때문
 - 이들의 소비규모가 급속히 증대되면서, 세계 각국에서 요우커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수속 간편화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

1) 遊客, 관광객을 통칭하는 중국어이지만 최근 국내에서 ‘중국인 관광객’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

- 중국의 중상위 계층 주민 가정에서 출국관광은 이미 가정생활의 주요 이벤트가 되었음.
조사대상 출국관광객 중 매년 1회 이상 해외여행을 한다고 답한 사람 수가 약 74%였음
- 2013년 기준, 출국관광 경험이 있는 중국인의 월평균 소득은 11,512위안으로, 중국 도시주민 1인당 월 소득 평균치(2,246위안)의 5배임

2) 2013년 출국 '요우커'의 선호 취향과 관광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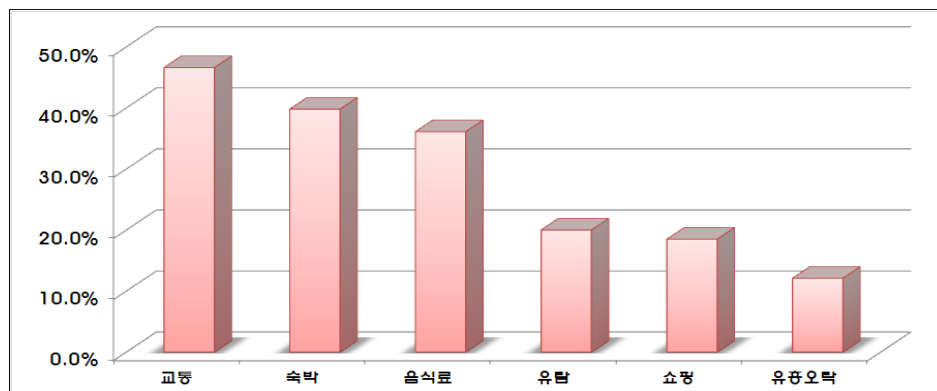
- 출국 요우커가 선호하는 상위 10위 국가는 한국, 홍콩, 태국, 일본, 타이완, 인도네시아, 몰디브, 싱가포르, 미국, 캄보디아 순임
- 상위 10위 도시는 홍콩, 서울, 타이베이, 동경, 오사카, 씨엠립(暹粒) 국제공항(캄보디아), 치앙마이(清迈: 태국), 로마, 두바이(迪拜), 런던 순
- 상위 10위 섬은 푸켓(普吉島), 제주도, 발리(인도네시아), 몰디브, 모리셔스, 하와이, 오키나와, 사바(말레이시아), 싸이판, 보라카이(长滩島: 필리핀) 순
- 한국 방문을 선택한 요우커의 특징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, 연령대로는 36~45세, 개인 월수입은 10,000~15,000위안 사이가 많았음
- 특히 외동자녀(獨生子)의 시야를 넓혀 주기 위한 방법으로 미성년 자녀를 해외여행에 동반하는 경향이 강함



출처: 中國公民出境(城市)旅遊消費市場調查報告(2014)

[그림 1] 중국인 출국관광객의 연령대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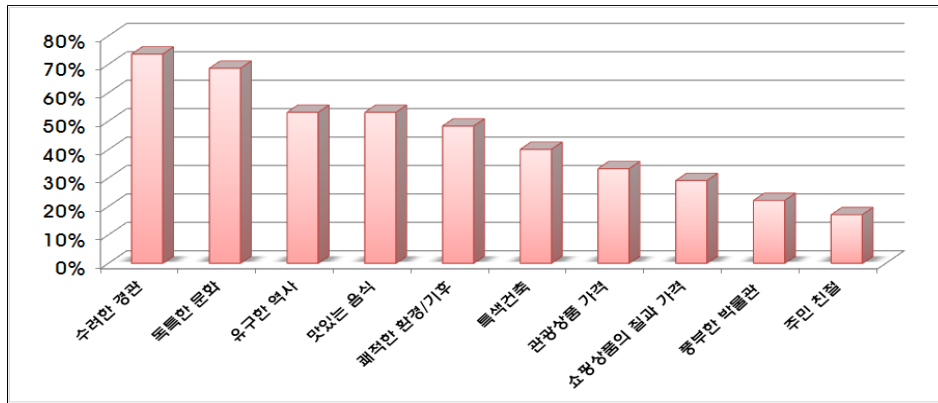
- 관광유형별 점유비중은 단체관광 37.4%, 자유(개별)관광 31.4%, 반(半)자유관광 18.7%였고,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요우커의 관광일정은 3~5일로 비교적 짧았음
 - 유럽과 미국을 선택한 요우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, 6일 이상 관광일정을 선택한 경우도 많음
- 여행지에서의 소비규모는 유럽과 미국 도시에서 소비규모가 가장 컸고, 그 다음이 일본과 한국임
 -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는 일반물품 구매 비중이 컸고, 유럽과 미국 도시를 방문한 요우커는 주로 숙박, 입장권 구입비, 그리고 사치품과 기념품 구입비 비중이 컸음
- 여행 시 가장 중시하는 문제는 교통, 숙박, 음식료 순이고,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언어소통, 소지한 금전 안전보관, 문화차이 순임
 - 유럽과 미국 도시 방문 요우커는 문화차이와 표지판 문제를, 동남아 도시 방문자는 신체와 소지품 안전문제를 걱정하는 비중이 높았음



출처: 中國公民出境(城市)旅遊消費市場調查報告(2014)

[그림 2] 중국인 출국 관광객이 중시하는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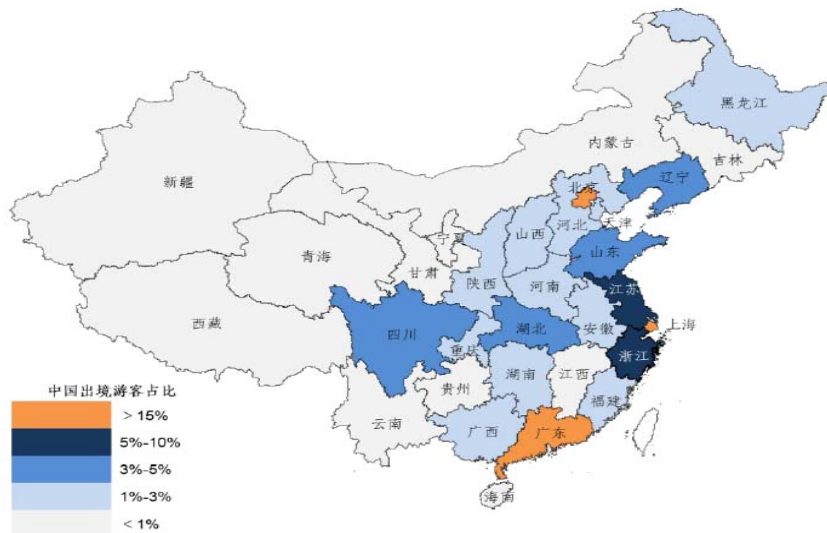
- 출국 요우커들이 선호하는 요소는 1위가 아름다운 경관이고, 그 다음이 각 도시의 독특한 문화임
 - 일본과 한국의 도시에 대해서는 음식과 관광상품 가격, 일상생활용품 등 쇼핑대상 상품의 질과 가격을 선호했음



출처: 中國公民出境(城市)旅遊消費市場調查報告(2014)

[그림 3] 중국인 출국관광객 선호 요소

- 출국 요우커 응답자 중 49.2%가 해외여행 대상 도시를 선택할 때 이미 출국방문경험이 있는 친지 등의 자문을 구한다고 함
- 출국 요우커의 주요 출발지는 화남(華南), 화북(華北), 화동(華東)지구에 집중되어 있고, 이중 상하이시, 광둥성, 베이징시의 점유비중이 가장 큼. 그 다음이 장쑤성(江蘇省), 저장성(浙江省), 산둥성 등 연해지구 성(省)급 지구들임. 이외에도 동북지구의 랴오닝성(遼寧省), 화중지구의 후베이성(湖北省), 서남지구의 쓰촨성(四川省)의 점유비중도 비교적 큰 편임
 - 충남과 마주보고 있는 황하이(黃海)와 보하이(渤海) 연해지구인 상하이시, 저장성, 장쑤성, 산둥성, 베이징, 랴오닝성을 타겟 지역으로 선정한 후 장소 마케팅 등 선택과 집중 전략 추진이 요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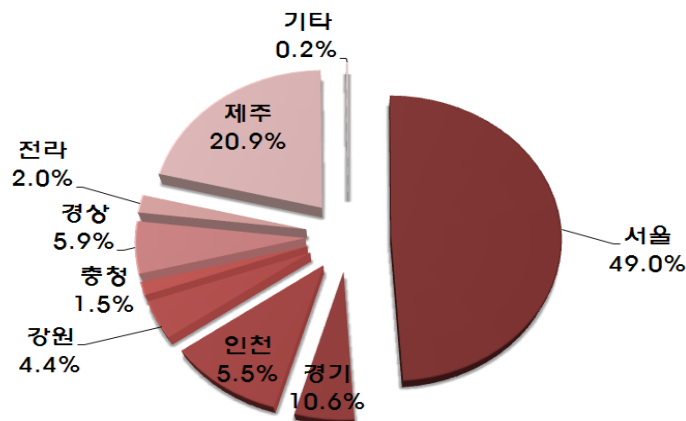


출처: 中國公民出境(城市)旅遊消費市場調查報告(2014), 世界旅遊城市聯合會, 9쪽

[그림 4] 중국인 출국관광객의 지역별 점유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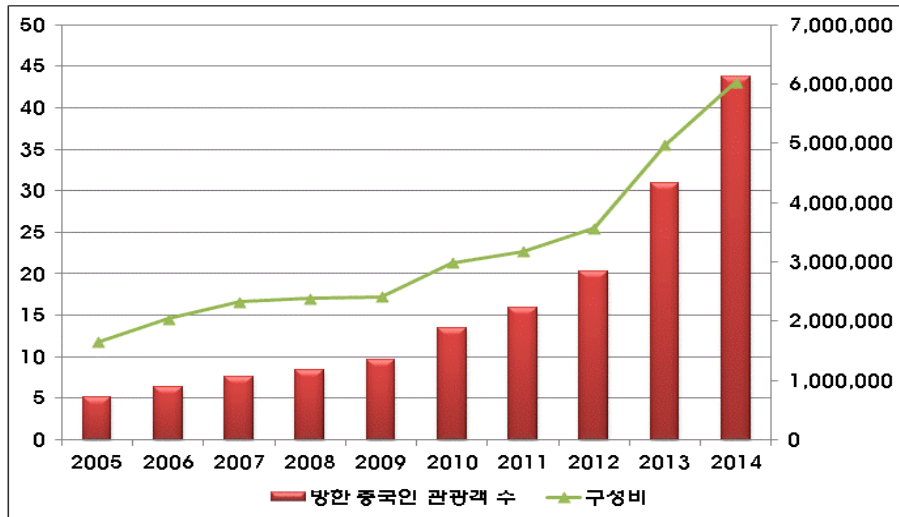
1) 방한 요우커의 유형과 관광 특징

- ◎ 방문 및 체류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61.5%(서울 49.0%, 인천 5.5%, 경기 10.6%)와 제주 (20.9%)에 집중되어 있고, 그 뒤로 경상권(5.9%), 강원권(4.4%), 전라권(2.0%)이고, 충청권이 1.5%로 가장 낮음(대전 0.9%, 충남 0.4%, 충북 0.2% 순임)



[그림 5] 방한 중국인관광객 방문지역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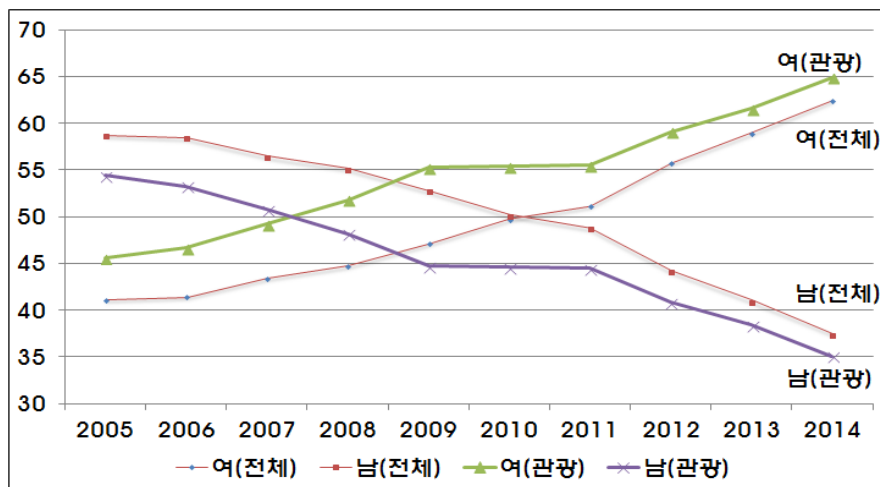
- ◎ 2000년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한 방한 요우커 수는 2007년에 107만 명, 2011년에 222만 명, 2014년에 613만 명으로 증가했음
 - 2014년 방한 요우커 수는 전년대비 약42% 증가했고, 방한 외국인관광객 총수의 약 43.1%를 점했음



[그림 6] 방한 요우커 수 및 외국인관광객 총수대비 비중

● 여성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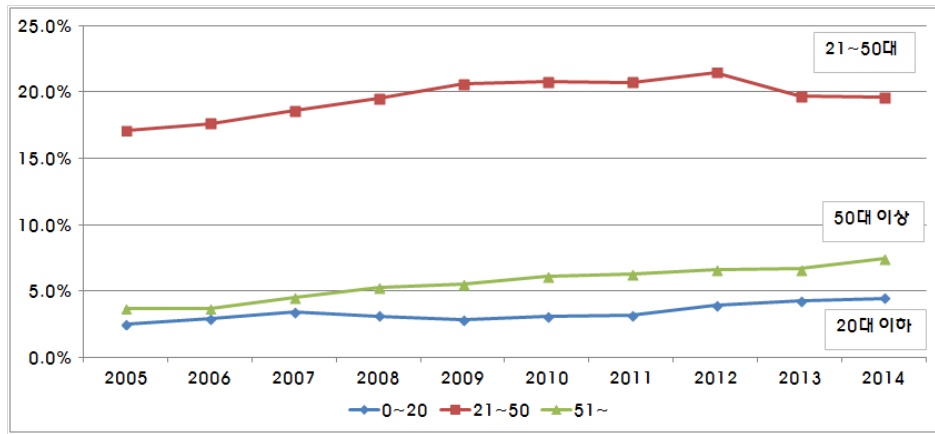
- 2005년 방한 요우커 중 남녀 비율이 58.8 : 41.2로 남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, 2014년에는 여성비중이 64.9%로 높아졌음



[그림 7] 성별 중국인 방한 현황

● 연령별 비중은 2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

- 젊은 층의 비율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큰 폭의 변화가 없으나, 50대 이상의 장노년층 관광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


[그림 8] 연령별 중국인 방한 현황

2) 충남 소재 대학 중국인 유학생 대상 조사 결과

- 충남 소재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42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9일부터 5일간 실시한 직접 조사 및 FGI 수행
 - 한국 관광에 대한 인식, 충남지역 관광에 대한 인식, 충남 방문 이후의 인식 변화 등을 조사 분석함
- 충남 소재 대학에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충남지역 내 관광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음
 - 충남과 지역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홍보전략과 장소마케팅 전략을 재정립하고, 충남의 관광 상품 홍보에 지역 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충분히 활용하고, 이들이 지역에서 체험한 경험을 중국에 전하도록 권장하는 전략이 필요함
- 최소 4~5년의 유학기간 내 실제 방문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부모 또는 친지들을 타깃으로 ‘효도관광’ 또는 ‘친지방문’ 등 한국 방문 관광상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
 - 한국방문비자 발급 관련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

- 현지 관광통역이나 관광가이드와 문화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에 충남 거주 중국인 유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
- 충남지역 테마관광과 체험관광상품이 부족
 - 김치만들기, 전통시장, 전통음식만들기, 농촌문화 체험 등 충남지역 특성과 연결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

1) 무엇이 약점인가?

● 충남도와 시·군의 대(對)중국 전략적 대응체제 필요

-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의 목적과 대상, 관광 및 산업과 연계한 추진전략이 부족
-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기초로 진행중인 대(對)중국 교류협력이 충남도와 15개 시·군 간의 전략적 연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
- 교류협력 대상 중국 지역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부족

● 충남지역 관광 홍보와 장소마케팅 부족

- 충남도내 소재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들조차 안면도 등 충남의 유명 관광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

● 충남 관광자원과 교통숙박시설 등 관광기반시설 측면의 경쟁력이 부족

- 도시문화와 쇼핑 측면에서 서울과 경쟁하기 힘들고, 자연풍광과 교통 편리성, 그리고 관광수용 시설 측면에서도 제주도와 차이가 큼
- 공항을 포함한 지역 간 연결 대중교통 등 교통여건 개선과 관광객 수용기반 확충이 필요함
- 국비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과 지자체 자체 능력에 맞추고 실천 가능한 목표와 사업(과제)을 구분하여 자력으로 추진하려는 문제의식이 부족함

2) 기본방향

- 관광 및 산업정책을 포함한 대(對)중국 전략적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
 - 단기적으로는 충남도가 백제문화유적 유네스코 등재에 대비해 조직 운영해 온 TF팀 같은 방식으로 요우커 유치 전략을 총괄하고, 홍보 및 지역마케팅, 교통망과 관광수용기반 확충, 환경정비 등 분야 및 부문별 목표와 실천수단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, 계층별·단계별 하위 정책수단을 충남 특색에 맞추어 구체화, 체계화하는 역할을 담당
- 기존의 충남도와 시·군의 대(對)중국 교류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면서 기업, 사회단체 관련 사업과의 연결이 필요함
- 자력 추진이 가능하고 신규투자 수요가 적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추진함
 - 자금 수요가 큰 대형과제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책사업화 논리개발 작업과 연결
- 주민 주도와 지역과 주민에 관광 사업수익 귀속 원칙을 견지해야 함

3) 요우커 유치 실행전략 제언

- 충남도, 각 시·군과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파트너 성, 시·현과의 관계망(關係網)을 적극 활용
 -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관계로 교류하고 있는 중국내 파트너 성(省), 시·현에 소재한 중국 현지 여행사와 전략적 제휴 등의 방식으로 충남지역 중국전담여행사를 설립, 육성
- 충남도와 각 시·군의 대(對)중국 교류 파트너 성, 시현 지역의 공무원 및 기업체 간부를 대상으로 정책연수관광상품을 설계·운영함
 - 홍동마을, 청양 알프스마을, 서천 친환경마을 도량 살리기 등 3농혁신과 6차산업 성공사례 대상 농촌관광 및 정책연수상품 개발, 테마체험형 관광상품의 설계·운영

- 충남 시군의 친환경 마을 만들기 등 삼농(三農: 농업, 농촌, 농민) 혁신 분야의 성공사례와 중국의 '신농촌(新農村) 건설' 경험사례 등을 소재로 한 상호학습 프로그램 운영

● 도내 시·군의 지역별 관광자원의 특성과 잠재력을 결합하며 연계

- 내발적 발전 차원의 점진적 상향식 연계전략과 중앙의 예산지원 획득을 위한 국책사업화 전략으로 구분
- 충남의 해안관광자원축을 태안·서산·당진 동서방향 횡축(橫軸)과 서산·홍성, 보령·서천 남북방향 종축(縱軸)으로 연계시키면서 해양경관 및 휴양, 해양헬스케어 관광상품을 설계·운영

● 단체보다는 개별자유여행 관광객에 중점

- 단체패키지(싸구려) 관광 보다는 갈수록 다양화 되고, 증가추세에 있는 테마별 개별자유여행객에 중점

● 랴오닝성(遼寧省), 허베이성(河北省), 산둥성, 장쑤성(江蘇省) 등 환황해 및 한반도만 연해지구를 대상으로 대(對)중국 문화관광교류 및 관광협력사업을 추진

- 요트, 마리나 해양스포츠 등 해양산업과 해양관광 분야에서 중국 산둥성과 저장성(浙江省) 등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'남색(藍色)경제정책'과 연결한 관광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

● 대(對)중국 장소마케팅과 홍보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

- 충남지역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중국어판으로 제작, 배포
- 중국어판 충남관광홈페이지 구축과 충남여행가이드북 발간 배포, 충남도와 시·군의 대(對)중국 교류파트너 도시 대상 홍보사업 추진, 지역내 중국인유학생과 이주민을 활용한 대(對)중국 장소마케팅과 홍보사업 추진.
- 충남도내 중국인 유학생들이 웨이신(微信, we chat) 등 스마트폰의 SNS 기능 활용 등을 통해 충남 관광지에 대한 여행 후기와 풍경 및 이벤트 참가, 체험활동 사진 등을 중국내 친지들에게 소개하도록 함

● 중국내 관광관련업체와 언론매체 등과 관계망을 구축하고, 현지 관광설명회를 개최

- 도와 시·군이 설치한 현지 중국사무소를 적극 활용

- 국내 및 중국여행사 대상 마케팅과 팸투어 추진 등

● 방한 요우커를 타깃으로 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발굴, 조성, 운영

- 중앙의 관광정책과 방한 요우커가 선호하는 행태와 수요를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추고 연결
- 천안, 아산의 화장품과 온천 스파, 의료관광, 보령 머드축제, 금산 인삼축제 등을 특화
- 도로 표지판과 관광시설, 간판 및 편의시설에 중국어를 병기하고, 중국어 구사 가능 관광안내원과 관광업 종사 인력을 양성

● 충남의 역사문화 스토리를 발굴 및 개발

- 공주·부여의 백제역사문화유적 관련 스토리 발굴, 당진과 서산의 중국사신 행차 재현, 불교 도래 과정과 사찰, 교황 방문지인 솔피성지, 해미읍성, 서천의 성경 도래지 등 천주교의 도래과정과 종교 박해, 그리고 성환의 청일전쟁 관련 유적지 조성 스토리와 연결한 관광상품 설계 등

● 국내 관광객 유치전략과 연계

-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방문지이자 국제공항과 국제여객선 항구 소재지인 서울, 인천, 제주 등지와 충청권(충남·충북·대전·세종) 관광자원을 연결한 관광상품을 설계-운영
- 관광거점에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펜션, 게스트하우스 등 중저가 숙박시설과 편의 시설을 확충

● 당진항, 대산항(서산), 보령신항 등 대(對)중국 교류 거점항만시설과 연계교통망을 확충

- 대산항 및 당진항 대(對)중국 여객선 취항 확대와 크루즈 입항 추진, 그리고 연계 교통망으로 대산-당진, 당진-천안 고속도로와 평택-익산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과 연계교통망 확충을 추진
- 2016년 상반기로 예정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(威海)시 룡연(龍眼)항과 서산시 대산항 간 국제 여객선 취항에 따른 항만 확충과 배후도시 조성, 주변지역과의 교통망 확충 연결사업에 대한 대책 사업화 논리를 적극 개발

● 서산 해미의 군용 비행장을 한-중간 노선을 운항하는 민항기 취항이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(對)정부 설득논리 개발과 여론 조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

- 청주공항과 연계한 충남지역 인삼쇼핑과 백제문화권 관광상품 발굴 및 판매 전략을 추진

- 관광분야 협동조합형 기업, 두레기업, 사회적 기업 등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, 적극적으로 활용
 - 관광분야 협동조합은 정부나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개별화된 관광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
 - 중앙부처와 대형 여행사 등이 관광패턴과 기본개념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지역과 주민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감
 - 협동조합이 주도하여 개별 자유여행자의 다양한 선호 항목에 맞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함

박 인 성 연구위원

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장

041-840-1169, ispark@cdi.re.kr

◆ 참고 자료 ◆

박인성 · 이인배 · 강수현, 2015, 중국인 입국관광객 충남유치전략, 충남연구원.

2013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, 문화관광연구원.

2014中国旅游发展报告, 國家旅游研究院.

中国旅游业統計公報, 中華人民共和國國家旅游局.

中國出境旅遊發展年度報告(2014), 國家旅遊研究院.

中國公民出境(城市)旅遊消費市場調查報告(2014), 世界旅遊城市聯合會.

中國統計年鑑(각 년도),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.

**** 이 글은 2015 충남연구원 전략연구과제인 ‘중국인 입국관광객 충남 유치전략’을 수정 · 보완한 것임**

충남리포트(2015년~현재)

구분	제 목	집필자	발행일
2015-01	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	정옥식	2015.01.05
2015-02	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	신동호	2015.01.13
2015-03	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	박철희	2015.01.26
2015-04	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	최은영 외	2015.02.03
2015-05	충청남도 도서(島嶼) 특성과 발전방향	한상욱	2015.02.12
2015-06	충청남도 행정통·리 마을의 최근(2005~2010년) 변화와 시사점	최은영 외	2015.02.17
2015-07	2015년 충남 GRDP 전망 -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	김양중	2015.02.25
2015-08	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	정준호	2015.03.05
2015-09	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	박배균·김동완	2015.03.12
2015-10	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	조명래	2015.03.20
2015-11	삼교호 수계!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	김영일 외	2015.03.26
2015-12	하구의 생태적 가치!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?	이상진	2015.04.01
2015-13	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	강현수	2015.04.10
2015-14	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- 전력요금의 지역실태 강화 방안 -	이인희	2015.04.16
2015-15	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	백운성	2015.04.17
2015-16	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	사공정희	2015.04.22
2015-17	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	강마야·이관률	2015.04.24
2015-18	충남 “미더유” 현황과 발전전략	권오성	2015.04.29
2015-19	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	이상준 외	2015.05.01
2015-20	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	김양중·백운성	2015.05.15
2015-21	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	이관률	2015.05.19
2015-22	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	류진석	2015.05.28
2015-23	과소화·고령화 된 농촌마을,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	조영재	2015.06.05
2015-24	충남의 환경보전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	명형남	2015.06.12
2015-25	충남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 및 성공전략	김종화	2015.06.19
2015-26	지역자원시설세,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	이민정·여형범	2015.06.26
2015-27	충남의 사회적경제, 자산 활용과 시·군 중심 추진이 바람직하다	송두범·박춘섭	2015.07.03
2015-28	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방안	이충훈	2015.07.10
2015-29	수소연료전지산업의 최신동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	이항구	2015.07.17
2015-30	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로 본 충남의 주거환경정책 추진방향	임준홍·홍성효	2015.07.23
2015-31	현대자동차와 충남의 상생발전 방안	김양중	2015.07.31
2015-32	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충남의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책제언	명형남	2015.08.12
2015-33	미국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	홍원표·강수현	2015.08.20
2015-34	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방안	이관률·송두범	2015.08.27
2015-35	충남의 제조업 중요소생산성 분석	이준표	2015.09.03
2015-36	충청남도 특성에 적합한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	이원태·김영일	2015.09.10
2015-37	충청남도 온실가스배출 특성 및 전략적 대응 방향	정종관 외	2015.09.17
2015-38	충남도민의 언론매체 이용 실태와 효율적 정책홍보 방안	박경철	2015.09.22
2015-39	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	김지훈	2015.10.08
2015-40	일본 후쿠오카현의 수소프로젝트 사례와 시사점	이민정	2015.10.13
2015-41	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방안	임성규·정명채	2015.10.22
2015-42	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맞춤형 농정혁신모델	김기현	2015.10.27
2015-43	‘도는 도답게’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	권선필	2015.10.29
2015-44	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	최영화	2015.11.05
2015-45	충남의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현황과 도민 건강 정책 방안	임준홍·이경주	2015.11.12

☐ 충남연구원 홈페이지(www.cni.re.kr)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,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!

☐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,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

충남리포트

ChungNam Report